

중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대표적인 주생활행태

- 3침실형 30평형대를 대상으로 -

The Behavioral Patterns on Residential Spaces among Middle-size Apartment Residen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30s pyong apartment with 3 bed rooms -

김미희*
Kim, Mi-Hee

이유미**
Lee, You-M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behavioral patterns on residential spaces such as the patterns of residential space usage and perception on residential spaces.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426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 with 3 bedrooms, stairway access, and 3-bay style in the City of Seoul, Busan, and Gwangju, during the month of September in 2004. The data was analyzed with frequency, factor analysis by using the SPSS 10.0 for windows, and with proc iml by using SA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at: 1) The most typical activities in the Anbang are 「sleeping and getting dressed」, 「family communication and T.V. watching」, and 「private affairs」; Anbang(master bedroom) has been perceived and used as couple's private area. 2) Living room was used as a multi-purpose room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such as 「family interaction」, 「entertaining guest with meals」, 「children's private affairs」, 「private affairs」, 「hobby activities」, 「clothes management」, 「couple interaction」, and 「occasions」. 3) The representative patterns of activities in dining-kitchen was 「food preparation」, and the need for social interaction in DK has been growing. The patterns of residential space usages can be used to develop and evaluate the unit plan of Korean middle-size apartment.

Keywords : The patterns of residential spatial usages, The perception on residential spaces, The behavioral patterns on residential spaces

주요어 : 공간사용실태, 공간사용의식, 주생활 행태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현대의 주거디자인은 거주자의 주생활과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거의 두지 않고, 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과정이 무시된 채 공급자의 일방적인 제안에 따른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하였다.

우리사회는 경제적 변영과 더불어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양식의 변화와 새로운 주택유형인 아파트에서의 거주경험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과 요구 또한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거주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전환과 주공간 요구에 따른 근본적인 평면구조의 새로운 유형개발의 노력과 보급보다는 사업성만을 중시한 공급자 위주의 기존 평면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용환, 198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이르러 평면형의 변화와 다양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문식 평면과 융통형 평면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조적, 경제적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뿐 보다 발전·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구성이라는 취지하에 새로운 평면형식에 대한 개발과 도전이 절실히 요구된다(김미희, 문희정, 2001). 특히 아파트의 공간계획은 생활양식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거주자 생활양식에 따른 주택내 각 실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새로운 실내공간계획이 필요

※본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선도연구원사업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C00353)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학박사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하다(이유미의 2인, 2001).

이러한 시점에서 소비자의 새로운 평면 형태에 대한 요구에 따라 각 건설업체에서 다양한 평면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그중 국내 아파트 평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0평형대 평면계획에서 전면에 bay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높아졌다. 즉 전면2-bay형에서 3-bay형으로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남향을 선호하는 거주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그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주택내의 주거공간이 주거치관을 포함한 주생활과의 대응관계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생활요구에 대응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환경의 다양화를 전제로 일반 거주자들의 생활실태, 주거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주생활행태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주생활행태는 인공환경 중의 하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공환경과의 대응 그 자체가 이를 이해하는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거환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체계인 생활양식을 주생활행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주거공간의 사용방법을 통하여 표출될 수 있다(김미희,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평면 유형 중 3침실형, 3-bay형, 30평형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간사용실태와 이를 뒷받침해줄 공간사용의식을 근거로 하여 주생활행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30평형대의 평면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3-bay 형의 평면계획의 방향설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1)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실태는 어떠한가?
- 2)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의식은 어떠한가?
- 3)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행위유형은 어떠한가?

2) 연구범위

조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국내 아파트 평면유형 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유형인 30평형대로 하였으며¹⁾, 거실, 식당 겸 부엌이 있는 3침실형이고 진입방식이 계단실 유형인 것 중에서 전면의 디자인이 3-bay형으로 제한한다. 조사대상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생활행태와 공간기능 분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3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경기, 부산, 광주 등으로 선정하였다.

1) 통계청(2004)에서 전국 33000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원하는 주택유형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는 47.9%를 차지하였고, 아파트평형형 중에서 30평형대는 53.9%로 가장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의 표집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 표집은 먼저, 서울, 부산, 광주의 3개 대도시를 선정하고 아파트 백과사전을 통해 전면 3-bay, 3침실형 30평형대의 아파트를 조사하여 각 지역 조사자들에게 해당아파트 중 무작위 표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다. 인구비례에 맞추어 지역당 할당표집으로 서울지역 164세대, 광주지역 142세대, 부산지역 120세대로 총 426세대가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은 광주지역에서는 개방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와 채취조사를 실시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본 조사과정의 두 단계를 걸쳐서 2004년 9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자료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SAS와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각 공간별 공간사용실태와 공간사용의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주생활 행위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SAS 통계패키지의 proc iml²⁾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주생활행태는 단위 주거 공간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주생활행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하위 개념으로 공간사용실태, 공간사용의식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사용실태는 각 공간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습관화된 주생활행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실별 주생활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공간사용의식은 주공간이나 주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잠재적 태도를 반영하는 변인으로서 거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에 대한 가치관, 안방, 거실, 식당겸부엌 등의 각 실에 대한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공간사용실태는 개인생활행위, 가족단란행위,接客행위, 행사, 가사생활행위 등을 조사하며 도구는 선행연구(이연숙, 김미희, 1989; 김미희 1991)의 조사도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평면계획의 중심이 되며 주거변용이 많은 안방, 거실, 식당 겸 부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주생활행태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주거공간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시도한 연구들을 바커(Barker, 1968)와 벡텔(Betchel, 1989)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커는 일련의 규칙적인

2) 주요실인 안방, 거실, 식당겸부엌 공간의 공간사용실태의 빈도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생활행위요인을 추출한 다음, SAS의 pro iml을 이용하여 각 공간별 주생활행위요인 등의 발생유무에 의한 요인들을 조합하여 각 실별로 발생 가능한 주생활행위 유형들을 파악.

행동의 유형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물리적 장소를 “행태의 장” 이라고 정의하고, 이 행태의 장의 영역을 망라해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행위들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태를 측정하는 총체적인 스케일을 개발하였으며 그 중의 일부로서 제시된 행위유형을 13개로 분류하였다. ‘행위유형’이란 한 사람의 전체시간 중 그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기록하여 한 행위유형의 전체시간을 주택내의 점유시간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후에 백텔은 바커(Barker, 1968)가 개발한 행위유형을 실증조사에 사용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11개로 분류하였다.

각 공간별 주생활행태 유형화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방의 경우 김미희(1992)는 몸단장, 휴식·취미생활, 자녀생활, 가사작업 등 4개 요인으로, 이복희, 한지영, 윤재웅(1999)은 안방의 주생활행위를 가족단란·모임, 휴식·오락, 몸단장, 취미생활 등의 4개 요인을 밝혀냈고, 이미혜, 윤재웅, 장식하(1999)는 손님맞이, 취미생활, 휴식생활, 가사생활, 몸단장, 가족단란 등을 추출하였다. 윤재웅, 이미혜(2000)는 손님·가족답소, 가사생활, 식생활, 취미생활, 몸단장 등으로 분류하였다 거실의 주생활행위를 분류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명옥, 안옥희(1991)는 아파트 거실 내 생활행위를 12개 항목으로 분석하여 가족단란, 육아, 취미생활, 문화생활, 접대행위 등의 5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김미희(1992)는 가사작업, 가족상호작용, 소극적 단란, 개인생활, 공식접대, 비공식접대 등의 6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식당·부엌의 경우, 공식접대와 가족단란, 식사, 개인생활, 가사작업 등의 5개 주생활행위 요인으로 묶어짐을 밝혀냈다.

앞선 선행연구들 중 일부는 주생활 행태에 대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여 주침실, 부엌겸 식당, 거실 등 각 공간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생활 행위유형과 주공간 의식을 제시한 바 있다(김미희, 1991).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의 30평대와 40평대 아파트 거주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조사가 아니므로 한국의 대표적인 주생활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조사 대상에 대한 주생활 행태의 유형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기본적 속성과 거주경험, 주거지향이라는 거주자 특성에 따라 나름의 생활상을 가지게 되는데 인간이 주거환경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먼저 관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평면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생활 행태를 고려하여 그에 대응한 주거공간과 기능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조사대상 아파트의 평면과 거주자 특성

1. 조사대상 아파트 평면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생활행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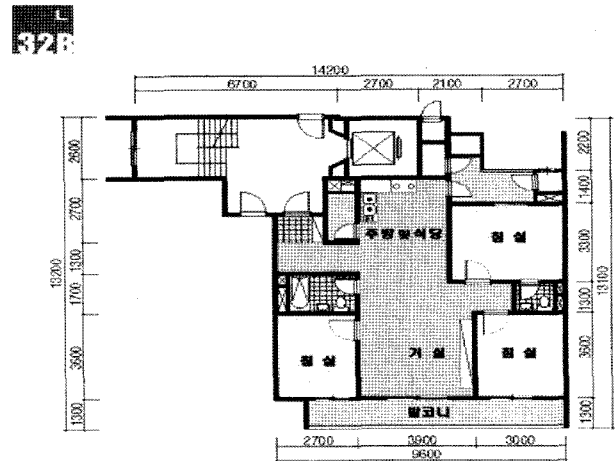


그림 1. 3침실·3bay·계단실·30평형대 아파트 평면

집된 전면 3-bay, 3침실형, 30평형대 아파트의 대표적인 평면은 <그림 1>과 같다. 조사된 평면은 전면에 방 2개와 거실이 위치하고 후면에 방 1개와 주방 및 부엌이 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화장실과 다른 부대시설은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2. 거주자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거주자 특성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 평균연령은 43.5세, 주부 평균연령은 41.1세였으며, 남편학력은 대졸이상인 88.9%, 주부학력은 대졸이상인 96.8%였다. 또한 남편의 직업 중 자영업이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부의 취업율은 39.5%였으며, 거주 년수의 평균은 42.6개월 이었다. 또한 가족생활 주기 중 초등교육기이하가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월 평균 생활비의 평균은 230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의 평균은 3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IV. 주생활행태

주생활행태는 단위 주거 공간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주생활행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하위 개념으로 공간사용실태, 공간사용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안방, 거실, 식당 겸 부엌 공간의 주생활행태를 규명하기 위해 세 공간별 주생활행위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생활행위 유형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은 분석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공간사용실태를 근거로 하여 각 공간별로 주생활행위가 발생한 빈도를 파악하고, 둘째,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시도하여 각 공간별 주생활행위요인을 규명하였다. 셋째, 이러한 주생활행위요인 등의 발생유무에 의한 요인들의 조합을 통하여 실별 주생활행위 유형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주생활행위 유형들 중 각 공간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순으로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 유형을 선정하였다. 넷째, 각 공간별 대표적 주생활 행위

표 1. 각 공간별 공간사용실태 N=426

주생활행위	공 간	안방 f(%)	거실 f(%)	식당겸부엌 f(%)
개인생활행위	남편 취침	376(88.3)	45(10.6)	0(0)
	아내 취침	395(92.7)	21(4.9)	0(0)
	첫째 자녀 취침	49(11.5)	12(2.8)	0(0)
	둘째 자녀 취침	47(11.0)	13(3.1)	0(0)
	기타가족 취침	19(4.5)	63(14.8)	2(0.5)
	개인독서	123(28.9)	117(41.5)	28(6.6)
	첫째 자녀 학습	10(2.3)	54(12.7)	12(2.8)
	둘째 자녀 학습	6(1.4)	54(12.7)	8(1.9)
	첫째 자녀 놀이	9(2.1)	156(36.6)	6(1.4)
	둘째 자녀 놀이	10(2.3)	142(33.3)	5(1.2)
	남편 취미생활	80(18.8)	171(40.1)	4(0.9)
	아내 취미생활	82(19.2)	179(42.0)	46(10.8)
	머리드라이	188(44.1)	23(5.4)	3(0.7)
	화장하기	324(76.1)	22(5.2)	3(0.7)
	신문읽기	821(9.2)	332(77.9)	30(7.0)
	낮잠자기	219(51.4)	188(44.1)	5(1.2)
	음악감상	69(16.2)	259(60.8)	24(5.6)
	개인 TV시청	127(29.8)	313(73.5)	6(1.4)
	휴식	173(40.6)	283(66.4)	15(3.5)
옷갈아입기	347(81.5)	14(3.3)	1(0.2)	
운동·헬스	4(0.9)	135(31.7)	5(1.2)	
화초가꾸기	4(0.9)	46(10.8)	12(3.1)	
pc,인터넷사용	31(7.3)	97(22.8)	4(0.9)	
가족단관행위	가족전체대화	32(7.5)	378(88.7)	89(20.9)
	부부끼리대화	251(58.9)	189(44.4)	43(10.1)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42(9.9)	321(75.4)	74(17.4)
	가족모임, 놀이	13(3.1)	391(91.8)	23(5.4)
	가족과의 차나 과일등 후식	8(1.9)	362(85.0)	104(24.4)
	가족식사	3(0.7)	99(23.2)	371(87.1)
	가족TV시청	32(7.5)	392(92.0)	11(2.6)
	부부끼리 TV시청	191(44.8)	235(55.2)	7(1.6)
	남편손님 식사대접	11(2.6)	325(76.3)	115(27.0)
	아내손님 식사대접	11(2.6)	228(53.5)	239(56.1)
접대행위	자녀손님 식사대접	1(0.2)	163(38.3)	206(48.4)
	친인척 식사대접	12(2.8)	336(78.9)	126(29.6)
	가장손님에게 차나 과일등 접대	10(2.3)	378(88.7)	40(9.4)
	주부손님에게 차나 과일등 접대	7(1.6)	309(72.5)	158(37.1)
	자녀손님에게 차나 과일등 접대	3(0.7)	209(49.1)	75(17.6)
	친인척에게 차나 과일등 접대	12(2.8)	387(90.8)	63(14.8)
	손님취침	35(8.2)	81(19.0)	5(1.2)
	손빨래	2(0.5)	2(0.5)	7(1.6)
	빨래정돈	31(7.3)	280(65.7)	12(2.8)
	빨래넣기	1(0.2)	21(4.9)	2(0.5)
가사생활행위	다 립 질	69(16.2)	282(66.2)	18(4.2)
	바느질(재봉)	109(25.6)	214(50.2)	14(3.3)
	가게부 정리	148(34.7)	89(20.9)	138(32.4)
	음식조리	0(0)	5(1.2)	389(91.3)
	큰요리작업	0(0)	17(4.0)	309(72.5)
	식품손질	0(0)	17(4.0)	357(83.8)
	식품저장	0(0)	0(0)	276(64.8)
	식품건조	0(0)	3(0.7)	107(25.1)
	생일축하(기념일)	7(1.6)	372(87.3)	59(13.8)
	반상회	3(0.7)	366(85.9)	9(2.1)
행사	취미(종교)모임	6(1.4)	317(74.4)	14(3.3)

유형들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 주생활행위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간사용의식은 주공간이나 주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잠재적 태도를 반영하는 변인으로서 공간사용실태를 뒷받침하였다.

1. 공간사용실태

주생활행위는 크게 개인생활, 가족단관, 가사생활, 접대행위, 행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안방, 거실, 식당 겸 부엌 등을 중심으로 공간사용실태를 살펴보았다.

각 공간별 발생된 공간사용실태는 <표 1>과 같으며 이는 주침실인 안방과 거실, 식당겸부엌의 세 공간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다.

안방의 공간사용실태를 보면³⁾, 90%가량 발생한 행위는 부부취침(남편취침 88.3%, 아내취침 92.7%)이었고, 그 다음은 옷갈아입기 81.5%, 화장하기 76.1%, 부부끼리대화 58.9%, 낮잠자기 51.4%, 부부끼리 TV시청 44.8% 등으로 부부관련 개인생활과 단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가게부정리 34.7%, 바느질 25.6%, 다림질 16.2% 등의 가사작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식사행위나 접대행위, 행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방의 공간사용실태는 주로 개인생활행위와 가사작업행위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거실의 공간사용실태를 살펴보면, 가족TV시청 92.1%, 가족모임, 놀이 91.8%, 가족전체대화 88.7%, 가족과의 차나 과일들의 후식 85.0%,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75.4% 등 가족단관행위가 매우 높은 비율로 발생되었고, 친인척에게 차나 과일들의 접대 90.8%, 가장손님에게 차나 과일 등의 접대 88.7%, 친인척 식사대접 78.9%, 남편손님 식사대접 76.3% 등 공식적인 접대행위도 높은 비율로 발생되었다. 또한 신문읽기 77.9%, 개인 TV시청 73.5%, 휴식 66.4%, 음악감상 60.8% 등 개인생활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다림질 66.2%, 빨래정돈 65.7%, 바느질(재봉) 50.2% 등 가사작업행위도 비교적 많이 발생되었다. 또한 생일 축하모임, 반상회, 취미모임 등의 행사가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거실의 공간사용실태는 안방이나 식당겸부엌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행위들이 발생되어 모든 행위가 거실에 집중되어 거실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당겸부엌의 공간사용실태를 보면, 가족식사가 87.1%로 주로 식사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아내손님식사대접, 56.1%, 자녀손님식사대접48.4% 등 접대행위도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족과의 차나 과일등의 후식 24.4%, 가족전체대화 20.9% 등 가족단관행위가 일부 나타났으며,

3) 이미혜외 2인(1999).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안방에서의 주생활행위는 부부의 개인적 생활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부부의 휴식행위와 주부의 가사노동이 차순이며, 운동, 식사 등 안방의 기능과 관련성이 약한 부분은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 공간사용의식의 일반적 경향

공 간 사 용 의 식	점 수 ^{a)}					평균 ^{b)}
	1	2	3	4	5	
안방은 손님접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28.9	22.3	14.1	18.1	14.6	2.61
안방은 가족단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9.2	26.1	27.2	25.4	9.6	2.92
안방은 손님과 자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부만의 공간이다.	13.8	16.9	11.5	30.5	24.4	3.26
거실은 손님 접대를 위한 공간이다.	12.2	13.8	11.7	29.8	29.8	3.43
가족간의 모임과 담소를 위한 가족실이 있으면 좋겠다.	11.5	19.0	31.0	19.0	16.4	3.01
우리 집 가정생활은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6.1	17.8	18.3	36.9	18.3	3.36
식당 겸 부엌은 가족단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7.7	20.4	26.5	33.3	9.9	3.11
식당 겸 부엌은 손님접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9.6	14.1	18.1	27.2	27.5	3.38
식당 겸 부엌은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이 좋다.	6.1	22.5	27.2	27.5	13.4	3.10
식당은 식사의 장소라기 보다 가족단란의 장소로서 의미가 크다.	12.4	15.7	7.3	25.6	36.9	3.52
우리 집 가정생활은 식사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4.9	23.7	32.4	31.0	6.1	3.04
손님접대를 위해 잘 갖추어진 식사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1	21.6	32.2	22.8	10.8	2.95
손님접대와 가족단란을 위한 방은 구분되는 것이 좋다.	7.5	20.9	26.5	28.2	14.8	3.15

^{a)}각 응답별 % 1-전혀그렇지않다 2-대체로그렇지않다 3-그저그렇다 4-대체로그렇다 5-정말그렇다.
^{b)}5점 리커트의 평균 점수

가사작업행위에서는 요리관련 가사행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계부정리 32.4% 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생일축하모임이 13.8%로 행사도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 분포사항을 보면 식사행위, 접대행위가 주로 발생되었고 일부 가족단란행위, 가사작업행위가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2. 공간사용의식의 일반적 경향

아파트 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공간사용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내의 안방(방1), 거실, 식당겸부엌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⁴⁾.

먼저 안방(침실1)에 대한 공간사용의식을 살펴본 결과 “안방은 손님과 자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부만의 공간이다.”에 대해 54.9%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정말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안방은 손님접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는 51.2%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않다.’로 응답하여 안방에 대한 공간사용의식이 부부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편취침 88.3%, 아내취침 92.7%, 가족단란행위 중 부부끼리 대화 58.9%로 나타난 결과(표 1 참고)와 접객행위들이 모두 10% 이하로 나타난 공간사용실태의 결과(표 1 참고)와 일목상통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거실에 대한 공간사용의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집 가정생활은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가 55.2%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여 거실이 주거공간에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4) 실제 연구에서는 안방, 거실, 식당겸부엌, 거실앞발코니, 부엌측 다용도실, 자녀실 등의 공간에 대한 의식으로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안방, 거실, 식당겸부엌에 관련된 문항만 추출하여 제시함

알 수 있었으며, 공간사용실태 결과에서도 거실공간이 다양한 행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식당 겸 부엌에 대한 공간사용의식을 살펴본 결과, ‘식당 겸 부엌은 가족단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에서 43.2%, ‘식당 겸 부엌은 손님접대에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에서는 54.7%의 거주자들이 “정말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공간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표 1 참고)에서도 가족단란행위 중 가족식사 87.1%, 가족과의 차나 과일 등의 후식 24.4%, 가족전체대화 20.9%,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1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사용실태에서도 식당겸부엌공간이 가족단란행위가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접객행위 중 아내손님식사대접 56.1%, 자녀손님식사대접 48.4%, 주부손님에게 차나 과일등의 접대 37.1% 등의 결과(표 1 참고)를 볼 때, 실제 식당겸부엌에서의 접객행위의 분포와 의식간의 결과는 같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3. 주생활 행위유형⁵⁾

주생활 행위유형을 규명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가 가지는 주생활 행태 중 공간사용실태를 통하여 주생활행위

5) 김미희(1992)의 연구에서는 안방의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은 몸단장과 가사작업의 2가지 행위가 발생한 유형이고 안방의 주생활 행위유형은 가사작업, 휴식·취미생활, 자녀생활행위 등에 의해 결정되었고, 거실의 가장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은 가족상호작용, 소극적 단란, 개인생활, 가사작업, 공식접대, 비공식접대 등의 6가지 행위가 발생한 유형이고 거실의 주생활 행위유형은 가사작업행위와 비공식접대행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식당겸부엌의 가장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은 식사와 공식접대 등의 2가지 행위가 발생한 유형으로 식당겸부엌의 주생활 행위유형은 공식접대와 가족단란행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표 3. 안방의 주생활 행위유형

유형	주생활행위 요인						f(%)
1	취침 및 몸단장	대화 및 TV시청	개인생활				77(18.1)
2	취침 및 몸단장	대화 및 TV시청	개인생활		의복관리		48(11.3)
3	취침 및 몸단장	대화 및 TV시청	개인생활		의복관리	부부취미	45(10.6)
4	취침 및 몸단장	대화 및 TV시청					35(8.2)
계							426(100)

표 4. 거실의 주생활 행위유형

유형	주생활행위 요인								f(%)
1	가족단란	식사접대	자녀생활	개인생활	취미생활	의복관리	부부단란	행사	94(22.1)
2	가족단란	식사접대		개인생활	취미생활	의복관리	부부단란	행사	72(16.9)
3	가족단란	식사접대		개인생활	취미생활	의복관리		행사	38(8.9)
4	가족단란	식사접대		개인생활		의복관리	부부단란	행사	35(8.2)
계									426(100)

표5. 식당 겸 부엌의 주생활 행위유형

유형	주생활행위 요인					f(%)
1		취사준비				85(20.0)
2		취사준비	식사접대	다과접대	가족단란	66(15.5)
3		취사준비	식사접대	다과접대		65(15.3)
4		취사준비	식사접대			56(13.1)
5	개인생활	취사준비	식사접대	다과접대	가족단란	46(10.8)
계						426(100)

가 어떠한 행위요인으로 구분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아파트 공간 중 주요실 인 안방, 거실, 식당 겸 부엌의 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행위의 발생빈도를 근거로 하여 각각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정에서 요인 부하치 .40을 기준으로 변수의 요인 부하치가 .40 이하로 나타나 어느 요인에도 묶이지 않는 경우는 누락시킨 결과 안방은 6개의 요인⁶⁾, 거실은 8개의 요인⁷⁾, 식당 겸 부엌은 5개의 요인⁸⁾이 추출되었다.

각 공간별로 주생활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방의 주생활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32개의 유형이 발생되었고⁹⁾ 그들 중 취침·몸단장, 대화·형 TV시청, 개인생활의 3가지 행위가 발생된 유형이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안방의 가장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을 알 수 있었다.

6) 안방 주생활행위 요인분석결과, 취침·몸단장, 대화·TV시청, 개인생활, 자녀취침, 의복관리, 부부취침 등 6개의 요인이 추출됨.

7) 거실 주생활행위 요인분석결과, 가족단란, 식사접대, 자녀생활, 개인생활, 취미생활, 의복관리, 부부단란, 행사 등 8개의 요인이 추출됨.

8) 식당겸부엌 주생활행위 요인분석결과, 개인생활, 취사준비, 식사접대, 다과접대, 가족단란 등 5개의 요인이 추출됨.

9) 개념적으로 2⁸ 즉 64개의 유형이 성립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32개의 유형만이 발생하였지만 여기서는 비율이 높은 4가지 유형만을 제시함.

활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안방의 발생 비율이 높은 네 개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네 개의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는 「취침·몸단장」과 「대화·TV시청」 등의 행동이며,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의복관리」의 발생유무에 있고, 유형2와 유형3의 차이는 「부부취미」의 발생유무에 있으며, 유형1과 유형4의 차이는 「개인생활」의 발생유무에 있다. 따라서 안방의 주생활 행위유형은 의복관리, 부부취미, 개인생활 등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거실의 주생활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52개의 유형이 발생되었고¹⁰⁾, 그 중 가족단란, 식사접대, 자녀생활, 개인생활, 취미생활, 의복관리, 부부단란, 행사 등 8가지 행위가 모두 발생된 유형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거실의 가장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거실에서 비율이 높은 네 개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네 개의 유형에서 모두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단란, 식사접대, 개인생활, 의복관리, 행사 등의 행위이며,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자녀생활」의 발생유무에 있고, 유형2와 유형3의 차이는 「부부단란」의 발생유무에 있으

10) 개념적으로 2⁸ 즉 256개의 유형이 성립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52개의 유형만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비율이 높은 4가지 유형만을 제시함.

며, 유형2와 유형4의 차이는 「취미생활」의 발생유무에 있었다. 따라서 거실의 주생활 행위유형은 자녀생활, 부부단란, 취미생활 등 발생여부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식당 겸 부엌의 주생활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으며 22개의 유형이 발생되었고¹¹⁾ 취사준비만이 발생하는 유형이 20.0%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취사준비, 식사접대, 다과접대, 가족단란 등 4가지 행위가 발생된 유형이 15.5%로 나타났다. 식당 겸 부엌의 가장 대표적 유형은 취사준비만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식당 겸 부엌의 높은 비율 순으로 해서 다섯 개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다섯 개의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는 취사준비이며, 유형2와 유형3의 차이는 「가족단란」의 발생유무에 있고, 유형3과 유형4의 차이는 「다과접대」의 발생유무에 있으며, 유형1과 유형4의 차이는 「식사접대」의 발생유무에 있으며, 유형2와 유형5의 차이는 「개인생활」의 발생유무에 있었다. 따라서 식당 겸 부엌의 주생활 행위유형은 가족단란, 다과접대, 식사접대, 개인생활 등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평면유형 중 3침실형, 30평형대, 3-bay형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간사용실태와 공간사용의식을 파악하여 주생활 행위유형을 규명하고 이를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중소규모 아파트의 평면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안방에서 주생활 행위를 요인 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은 취침·몸단장, 대화·TV시청, 개인생활 등 3가지 행위가 발생하는 유형이었고, 응답자의 18.1%가 이에 해당한다. 상위 네 가지 유형(응답자의 약 40%)을 살펴보면, 두 번째 유형에서는 유형1에 의복관리가 추가되었고 세 번째 유형에서는 유형2에 부부취미가 추가되었다. 이는 안방에서는 가족단란이나 접대와 같은 전통적인 기능이 없어지고 개인공간화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간사용의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부부만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거실에서 주생활행위를 요인 분석한 결과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거실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은 가족단란, 식사접대, 자녀생활, 개인생활, 취미생활, 의복관리, 부부단란, 행사 등 8가지 행위가 모두 발생하는 유형이었고, 응답자의 22.1.0%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거실에서는 취침이나 식사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상위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두 번째 유형에서는 유형1에서 자녀생활이 누락되어 자녀의 유무와 연령에 따라 주생활유형이 달라졌다.

식당 겸 부엌에서 주생활행위를 요인 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은 취사준비만이 발생하는 유형이었고, 응답자의 20%가 이에 해당한다. 식당 겸 부엌의 주생활 행위유형을 결정짓는 주생활행위는 가족단란, 다과접대, 식사접대 등이었다. 또한 공간사용의식에서도 식당 겸 부엌은 가족단란 또는 손님접대공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식당 겸 부엌에서는 가족단란 뿐만 아니라 손님접대가 점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사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왔던 과거에 비하여 사회적인 공간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제 응답자의 주생활행태 유형과 그 분포는 매우 다양하여 기존의 고정적인 평면계획만으로는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규모 30평형대 아파트거주자의 대표적인 주생활행위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주거공간의 주요실의 기능을 재해석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주생활 행태에 대응하는 평면개발을 위한 계획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미희(1991)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9-107.
2. 김미희·윤복자(1992)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권 10호, pp.25-39.
3. 김미희(1996) 벨지움의 주거공간사용행태에 대한 연구(I)-화란 어권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가정과학연구, 제6권 pp.39-47.
4. 김미희·분희정(2001)식당겸부엌 전법배치형 아파트의 공간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8호, pp.51-58.
5. 이미혜·윤재용·장석하(1999)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행위와 가구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0권 4호, pp.137-146.
6. 이유미·임미숙·백혜선(2001) 소형아파트거주자의 실내공간 이용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2호, pp.19-27.
7. 이연숙·김미희·오찬옥·이숙영·최수현(1990) 주거공간 내에서의 주생활행위 및 행위간 갈등에 관한 연구-집합주거 환경의 평가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연구I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3호, 통권29호 pp.21-34.

11) 개념적으로 25 주 32개의 유형이 성립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2개의 유형만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응답자의 10%이상이 나온 유형만 제시함.

(接受: 2005. 3. 4)